

동국대, 인성교육 중심으로 발돋움

경주캠퍼스 인성체험콘텐츠연구원 발대식 및 연구 발표회

올해 인성체험파크 설립 목표

동국대가 인성교육을 위한 체험테마파크 설립을 추진한다.

동국대 경주캠퍼스(총장 이계영) 한국인성체험콘텐츠연구원(원장 박상진)은 1월 15일 KTX 용산역 회의실에서 인성체험콘텐츠 분야별 연구발표와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이상길 자문위원을 비롯해 교육부부 정찬목 선임연구원, 영상미디어부부 박영수 선임연구원, 캐릭터디자인부부 김재신 선임연구원, 설계디자인부부 김기현 선임연구원, 예체능부부 이준희 선임연구원, 한국음악부부 김은실 선임연구원, 교재기획부부 박진영 선임연구원, 체험장비부부 문서경 선임연구원 등 모두 9명의 선임연구원에 임명장이 수여됐다.

이어 진행된 연구 발표에서는 인성체험테마파크의 설립 배경과 목적, 기존 테마파크 운영 실태, 세부 운영 방안과 전망, 첨단 영상기법 도입, 체육활동의 중요성, 전통놀이를 활용한 교육모델

등의 연구 발표가 진행됐다.

박상진 한국인성체험콘텐츠연구원장(동국대 한국음악과 교수)은 “학교와 가정에서 폭력이 난무하고 임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폐해가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교육과 진로교육은 시대적인 요구”라며 “정부 교육에 발맞추어 우리의 역사체함을 통해 자연스럽게 인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예체능을 결합한 놀이교육이 시도되는 새로운 개념의 인성체험테마파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5월말에는 정부 관계자와 일선 교육기관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금년 내 인성체험테마파크를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인성체험콘텐츠연구원은 인성체험테마파크의 설립 방향을 설정하고 테마파크에 필요한 각종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동국대 경주캠퍼스 예술문화진흥연구소가 한국국악교육원, 아이템플 플라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발표했다.

신성민 기자



동국대 경주캠퍼스 한국인성체험콘텐츠연구원은 1월 15일 발대식을 개최했다.

천태불교학술대회 11월 5일 열린다

천태불교문화연구, 15일 총회... 신년 계획 확정

천태종 불교학 연구기관인 천태불교문화연구의 올해 사업 계획이 확정됐다.

천태불교문화연구원(원장 이봉춘)은 1월 15일 오전 10시 서울 관문사 3층 국제회의실에서 2016년도 위원총회를 개최했다.

자문위원 천태종 총무원장 훈과 스님, 권기중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정병조 前 금강대학교 총장, 연구위원 천태종 총무부장 월도 스님·교무부장 경혜·교육부장 장호·재무부장 월중, 고우익 천태종 前 승가대 교수 등 5명이 참석했다.

이날 위원총회에서는 △2016년도 천태불교학술대회 △(천태학연구)19집 발간 △금강불교대학 교육교재 연구기

획 등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논의 결과 올해 천태불교학술대회는 오는 11월 5일 서울 관문사 옥불보전에서 ‘천태종의 한국적 특성과 그 정체성’을 주제로 열린다. 또한 법화삼대부(법화현의) <법화문구> (마하지관)을 발간하고, 금강불교대학 교육교재 연구는 금불대 공통교과 2과목을 전년도에 이어 개발하기로 결의했다.

훈과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금년 천태불교문화연구원은 종단 및 한국불교의 발전, 더 나아가 사회안정을 목표로 더욱 심도 깊은 학술연구에 더욱 매진하길 바란다”며 “불교가 현 시대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 할 수 있는 사회적 기능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가야불교 전래지 아유타, 허구 아니다”

황정일 교수, 16일 가야문화 학술세미나서 주장

삼국시대 여러 국가들의 연맹 왕국이었던 가야(伽倻)는 존재만 알려졌을 뿐 한국 역사에서 가지는 위치는 크지 않다. 이는 불교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가야 문화의 원형을 되짚어 보기 위한 학술대회가 불교계를 중심으로 개최됐다.

김해 여여정사(주지 도명)는 1월 16일 김해 가야대 국제회의실에서 ‘가야문화 원형의 탐색과 콘텐츠화’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부산 여여선원장 정여수님을 비롯한 100여 명의 불교계 사부대중과 허남식 前 부산시장, 김해시 민홍철 국회의원 등 내외빈들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황정일 동국대 강의교수가 가야불교 전래 지역으로 알려진 인도 아유타 지역에 대해 한역 경전 음역어를 바탕으로 분석해 논의를 펼쳤다. 사실 가야불교가 인도 아유타 지역에서 허황옥에 의해 전해졌다는 설은 일연 스님의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명시된 이래 현재까지 논란 중에 있다. 고구려를 통해 불교가 들어왔다는 북방불교 전래설을 비롯해 이와 상반되는 해상루트를 통해 전해졌다는 남방불교 전래설

이 맞서기 때문이다.

전래지인 인도 아유타에 대해서도 △북인도 아유타로 보는 입장 △아유타 지명은 <라마야나> 신화에 근간을 둔 허구라는 입장 △남인도 아유타야 꾸뻬 혹은 일부 지역일 것이라는 세 가지 입장으로 나뉜다.

황 교수는 기존의 학설에 기반해 아유타(阿踰陀)에 대한 초기경전 내 음역을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아유타는 적어도

아유타 관련 음역어 10개 분석
이미 <잡아함경>서 음역어 발견
“아유타, 초기불전에 실재한 도시
부처님과 관련된 불교 신봉지역”

10개의 음역어를 갖고 있으며, 한자 표기는 14개가 된다. 음역어를 추적한 결과는 흥미롭다.

초기경전인 <잡아함경>에 이미 아유타의 음역어인 ‘아비사’와 ‘아비타’가 나올 뿐만 아니라, 아유타의 개명 전 나라명인 ‘사게타’의 음역어인 ‘사기’와 ‘파기’ 역시 등장하고 있다. 이는 이미



김해 여여정사는 1월 16일 김해 가야대 국제회의실에서 ‘가야문화 원형의 탐색과 콘텐츠화’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아유타와 사게타가 공존했다는 증거로 사게타가 <라마야나>에 의해 아유타가 됐다는 주장과 모순된다는 것이다.

법현의 <고승법현전> 이전에는 아유타라는 지명이 없었다는 주장 역시 이전에 역경된 <불설수발소표경>에 아유타의 음역인 아영사가 등장하고 있어 수정돼야 한다는 황 교수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황 교수는 “가야불교 전래지인 아유타는 초기불전에 실재하는 도시로 나올 뿐만 아니라 부처님과 관련한 여러 에피소드를 갖고 있는 불교신봉지역임을 틀림없다”면서 “가야불교가 인도 아유타로부터 전래됐다는 설은 그과

정의 맥락은 확신할 수 없지만, 적어도 허구적이지는 않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날 학술세미나에서는 석길암 금강대 교수의 ‘불교의 가야전래에 대한 일연(스님)의 인식과 가야불교의 성격’, 한지연 금강대 교수의 ‘기원 1~3세기 해상루트를 통한 불교전래의 가능성’, 이근우 부경대 교수의 ‘가야시대 부산지역 불교에 대한 예비적 검토’ 등이 발표됐다.

논평자로는 장재진 동명대 교수, 윤종갑 부산대 교수, 서영교 중원대 교수, 정효운 동의대 교수가 참석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간화선은 초기 선종을 왜곡시켰나

박건주 소장, 간화선 비판 <선종사상...> 발간

“본래 달마선에서 출발한 선불교는 후대로 가면서 본래의 정통선에서 한참 벗어나 급기야는 선어록을 금과옥조처럼 받들고 경전공부는 무시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나아가 간화선에서는 짝막한 어록 내지 공안 가운데 화두라는 단어 하나에만 묶이게 했다.”

간화선의 모태인 남종선(南宗禪)이 선종 초조 달마대사가 주장한 교선일치의 근간을 허물고 왜곡시키는 등 악영향을 끼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건주 능가산연구소장(전남대 강사)은 최근 발간한 저서 <선종사상 왜곡의 역사와 간화선>을 통해 간화선의 탄생과 왜곡의 역사를 비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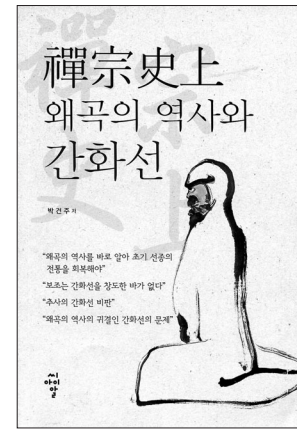
박 소장의 저서에 따르면 육조혜능 문하에서 나온 남종선은 자신들이 달마선 이래 돈법(頓法)을 계승했지만, 북종선은 이를 계승하지 못했다는 등의 왜곡된 사실을 퍼뜨렸고, 북종선의 신수 스님에

대해서는 형편없는 인물로까지 묘사하기도 했다.

박 소장은 간화선이 교선일치의 근간을 무너뜨리면서 불교사에 큰 오점을 남겼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박 소장은 “대혜종교에 의해 만들어진 간화선은 화두를 깨달으면 불조의 깨달음을 뛰어넘는 것으로 간주했다”며 “화두만 깨우치면 만사가 이뤄지는 것이 돼 신해행증(信解行證)의 기본 수증(修證)의 길도 퇴각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혜종교 이래 간화선가에서는 목조선을 사선(邪禪)으로 비난해왔지만, 실은 오히려 목조선이 초기 선종의 선법을 올바르게 계승하고 있었다”면서 “간화선이 선종의 주류가 됨으로부터 마치 뉘가 커져서 본 자리를 차지하고 주변 치어를 망가뜨리는 일이 후대에 이어졌다. 그런 잘못된 현상이 가장 심하게 전개돼 온 곳이 한국불교”라고 비판



선종 위조과정서 간화선 탄생
‘교선일치’ 초기 전통 무너져
“韓불교 곡해된 인식 벗어나야”

했다. 이와 함께 박 소장은 고려 이후 간화선종이 정착하게 된 것을 정교유착의 형태로 보았다. 고려 무신정권은 교종의

저항에 직면하자 진각국사 해심 스님을 필두로 한 선종을 후원했고, 간화선이 성행될 수 있었다고 봤다. 또한 해심 스님은 스승인 보조국사 지눌 스님의 저서 <절요사기>, <간화결의론>을 조작함으로써 간화선이 최상승인 것으로 인식하게 했다는 게 박 소장의 주장이다.

박 소장은 “진각 해심의 위조는 무신정권의 주도 하에서 펼쳐진 것이고, 해심은 그에 순응한 것”이라며 “이후 수선사의 사주(社主) 계승은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모습을 거의 볼 수 없다. 수선사는 무신정권 기간동안 계속된 지원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조작과 위조에 대중이 속아 넘어간 것은 선종사와 대승의 교의에 대한 기본적인 식견이 없었던 까닭”이라며 “이 글을 통해 이제 선종사 내지 불교사가 어떻게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게 됐는지를 올바르게 간파할 수 있는 안목을 얻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내손 안의 육임

이제 운세를 휴대전화와 휴대용 PC로 손쉽게 손안에서 해결되는 새로운 비법의 육임 운영법(사주, 개운법포함), 명궁법, 신수법, 시간법을 각자의 생년월일만 넣으면 8640 페이지로 명쾌하게 해결할 수 있다.

명궁법

생년월일 정보입력

이름, 생년월일, 양력/음력, 태어난시간, 성별

시간법

생년월일 정보입력

이름, 생년월일, 양력/음력, 태어난시간, 성별

신수법

생년월일 정보입력

이름, 생년월일, 양력/음력, 태어난시간, 성별

MAIN

생년월일 정보입력

이름, 생년월일, 양력/음력, 태어난시간, 성별

지금까지는 운명을 알아 맞추는 형식이었던 육임 운영법은 운명의 법칙대로 살아야 잘사는 법으로 만든 비술이다.

시간법도 각각 年命(년명)을 대입하여 풀이하는 국내 최초의 비술이며 휴대전화 앱으로 볼 수 있는 국내최초로 만든 손 안의 운세이다.

육임은 대운법 뿐만 아니라 세운으로 각자의 운명을 어떻게 살아야 맞게 사는지 자연법칙에 맞추어 만든 비술이다.

인연이 가장 중요하고 직업이 중요하다. 만법이 자연에 순응하여 살듯이 인간도 자연법칙에 맞추어 살아야만 세상을 이기고 행복한 삶을 사는 법이다.

육임 운영법은 자연법칙에 맞는 인연과 직업을 명확히 알고 살도록 만든 최초의 비술이다.

■ 가 액 : 600만원 (모바일 / PC 버전 : 내손 안의 육임 보는법 무료로 강좌 해 드립니다.)
 ■ 육임강좌 수강생 모집 : 수강료 300만원
 ■ 강좌문의 : 공법학당 010-4471-6410 ■ 구입문의 : 관음출판사 02-921-8434

서예가 남청의 작품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픈방 행사
01.30(토) 14:00
코모도호텔 2층 화탁정

1차 전시
01.30(토) ~ 02.01(월) 09:00-21:00
코모도호텔 2층 화탁정

2차 전시
02.02(화) ~ 02.05(금) 09:00-19:00
김해 신흥사

문의 남청임성순 작가 HP.010-3856-9852

서예가 남청임성순선서화개개인전 2016
1월 30일(토) ~ 2월 05일(금) 7일간

推球林亦倚青林采秀逢春亦喜心
推球林亦倚青林采秀逢春亦喜心
推球林亦倚青林采秀逢春亦喜心